

- 출장 국가 및 지역: 영국 버드제드·호거튼 등
일본 미야마초·기타하리마·미마사카·구라요시 등
- 출 장 자: 송 미 령
- 출장기간: 2010. 2. 1 ~ 2. 9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‘금수강촌 만들기 홍보사업’ 선진지 답사 미디어 투어를 위한 해외 출장
2. 출장목적:
 - 해외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현장 답사를 통해 ‘금수강촌 만들기’사업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농업전문지 기획기사에 게재
 - 해외 우수사례 지역과 국내 농촌의 여건을 비교, 분석하여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필요성 강조
3. 출장지역: 영국 버드제드·호거튼, 일본 미야마초·기타하리마·미마사카·구라요시 등
4. 출장기간: 2010. 2. 1 ~ 2. 9(8박 9일)
5. 출 장 자: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농업·농촌정책연구본부	연구위원	송미령

6. 출장일정 및 방문기관

구분	요일	국가	내용
1일	2/1(월)	인 천 런 던	◦인천 국제 공항 출발 ◦런던 도착 후 가이드 미팅
2일	2/2(화)	런 던 베드제드	◦공식일정 : 베드제드 방문 및 견학 ◦런던 귀환
3일	2/3(수)	런 던 호 커 튼	◦공식일정 : 호커튼시 방문 및 견학 ◦런던 귀환
4일	2/4(목)	런 던 더 럼	◦공식일정 : 더럼 방문 및 관계자 미팅 ◦더럼 지역커뮤니티 민박 체험
5일	2/5(금)	더 럼 런 던	◦런던 귀환 ◦런던 시내 견학 후 공항 이동 ◦런던 공항 출발
6일	2/6(토)	인 천 간사이(일본)	◦인천 공항 도착 ◦인천 공항 도착 후 연계수속 ◦인천 국제 공항 출발 ◦간사이 국제공항도착

7일	2/7(일)	간사이 미야마초 기타하리마 미마사카	◦교토이동 ◦공식일정 : 미야마초 관련미팅 ◦공식일정 : 전원공간 박물관 관련 미팅 - 전원공간 박물관 방문 - 전원공간 조성에 관한 설명청취 및 현지사찰 ◦농가 민박 투숙
8일	2/8(월)	나 카 초 구라요시	◦공식일정 : 미마사카 관련미팅 - 전원아트(도리짱단보) 방문 ◦공식일정 : 구라요시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미팅 ◦다이센 이동
9일	2/9(화)	다 이 센	◦공식일정 : 사카이미나토시 요괴거리 관련 미팅 - 요괴거리 조성에 대한 개요설명 ◦미즈키시게루 기념관 및 현지사찰 ◦요나고 국제공항출발 ◦인천국제공항 도착

II. 주요 출장 결과

1

영국 방문지별 조사내용 및 시사점

1. 베드제드(BedZED_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)

□ 개요

- 위 치 : 런던 서튼 자치구(London Borough of Sutton)
- 규 모 : 약 100가구 거주
- 운 영 : 자선기업 바이오리저널(BioRegional)
- 특 성
 - 런던 시내에 있으며 바이오리저널 이라는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운영, 난방과 물 공급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및 디자인
 -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이용보다는 걷기 와 자전거 타기 등을 우선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
 - 거주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주자 단체나 시설을 만들고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

□ 조사내용

- 대도시 내 에코주거단지 운영의 방식과 내용
- 정부의 지원 수준 및 정부와의 관계
- 면담자
 - 바이오리저널 공동대표 : 수 리들스톤(Sue Riddlestone)

□ 대도시 내 에코주거단지 운영의 방식과 내용

- 거주자들에게 친환경 생활방식과 방법을 실천하도록 유도
 -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하기,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텃밭

가꾸기 등을 교육하고 관련 서비스제공

-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을 입주시키며 자유롭게 이사도 가능하고 원하면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전환
- 목적 : 금전적 효과보다는 사람들 스스로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제로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의식을 만들어 내고 확산

○ 에코 주거단지의 가시적 효과

- 지역의 전기사용량 대비 45% 절감, 가스사용량은 81% 수준
- 지역 평균 사용량의 절반인 72리터의 물 사용
- 평균 생태발자국지수 4.67 Gh (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기 위한 지수는 2.6)
- 초기 비용은 1500만 파운드 정도이며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 됨

○ 에코 주거단지에 대한 주거인들의 변화와 만족도

- 대부분의 거주자는 친환경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살고 있었던 일반 주민이었음
- 이곳 사람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태도도 많이 변화되었음
- 이사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많고 특별히 베드제드가 싫어서 나가는 사람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음
- 태양열 병합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기도 하고 외부로 나가는 교통이 불편하여 젊은 층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음

□ 정부의 지원 수준 및 정부와의 관계

○ 특별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

- 규제와 정부보조금이 없이 자발적인 운영

: 서튼지구 카운실과 협력하는 관계일 뿐 보조금은 없음

○ 정부조직에 소속되어 정책 참여

- 에코타운 챌린지 패널이라는 정부 조직에 참여하여 에코타운에 대한 정책에 많은 참여와 조언 제공
- 탄소 세금을 부과하여 일반적으로 차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정책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한 상황

○ 해외 유사 조직과의 협력으로 글로벌로의 확장 진행

- 비슷한 컨셉의 에코시티 서비스를 영국의 다른 지역에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, 남아공 등의 에코단체와 파트너십 체결로 확대

<토론 및 시사점>

□ 민간단위의 탄소제로 운동의 실질적 실천

-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주거단지를 설계하고 운영하여 생활 속의 친환경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정책적인 파급효과 창출
 - 위로부터의 정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책이 구체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정부의 금전적 지원 보다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
- 2050년까지 런던 시내 90%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아래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교육하고 장려함
 - ⇒ 정부의 정책 방향인 녹색성장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민간단위의 커뮤니티나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
 - ⇒ 지역단위의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스로가 농어촌 관련 및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여 동참과 관심 유도
 - ⇒ 민간단위의 주민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수용성과 참여율 제고

□ 도시와 농촌이 단일한 공간

- 도시와 주변 로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여기며 가급적 지역 안에서 나는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공간으로 활용
 - 런던 시내의 서튼 안에서도 농사를 짓는 구역이 있으나 이런 개념으로 도시와 농촌을 이분화하지 않음
- ⇒ 금수강촌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산업만 다른 하나의 공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

□ 경제적 이윤 창출 보다 시민의식이 우선

- 친환경 생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보다는 시민의식 함양에 기본적 목표를 두는 장기적 안목을 갖추
 - ⇒ 금수강촌 사업도 노동교류 및 일원화에 대한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공중들의 의식을 바꾸는 역할을 우선과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
-

2. 호커튼 HHP (Hockerton Housing Project)

□ 개요

- 위 치 : 노팅엄셔 사우스웰 호커튼 외곽
- 규 모 : 5가구 거주
- 특 성
 - 1995년에 시작된 영국 최초의 자급자족형 친환경 주거 개발 프로젝트(HHP)
 - 사용하는 에너지와 물을 생산해 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재활용하며 친환경적인 생활 영위
 - 정부의 허가를 받아 특이한 친환경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, 은행과 환경단체의 협조로 각 세대당 999년 리스 서비스 혜택
 - 난방의 불필요로 인해 일반가정의 십분의 일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따뜻한 물은 뜨거운 펌프나 극도로 절연된 열 저장고를 이용해 일반가정의 50%에 해당하는 양의 에너지 사용
 - 비영리 회사인 호커튼 하우스 프로젝트 트레이딩 유한회사가 설립되어 마을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삶을 홍보

□ 조사내용

- 개인단위의 친환경 삶의 실천과 정부의 역할
 -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건축방식 규정
 - 자급자족형 저탄소 생활방식
- 면담자
 - 사이먼 툴리(Simon Tilley) : 설계자 및 대변인

□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건축 방식 규정

- 2016년까지 건축될 모든 건물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 손실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규정화

-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에너지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집을 마감해야하는 규정 (Code for Sustainable Homes)
 - 6단계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2016년까지 단계를 조정해가며 시행
 - 기후변화부(Department of Energy & Climate Change)에서 관할
 - 시행 초기단계의 어려움은 있지만 건축설계자들 스스로가 12년 전부터 지켜왔던 규정
 - 면담자는 규정이 생겨나는 데 HHP의 역할이 있었으리라 짐작
- ※ 기후변화부(DECC) : 2008년 10월에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관련정책 관할 부서(www.decc.gov.uk)
- ※ Code for Sustainable Homes (탄소배출 감소량 목표비율)

코드레벨	시행시기	현행규정(2009년부터)
1		25%
2		25%
3	2010	25%
4	2013	44%
5		70%+30%허용 가능한 대안제시
6	2016	탄소제로하우스 구현 - 70%+30%허용 가능한 대안제시

(<http://www.communities.gov.uk>)

□ 자급자족형 저탄소 생활방식 및 HHP운영

- 집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탄소제로를 위한 실천을 고려
- 건축자제가 특수하여 비용이 들지만 난방시스템 같은 설비가 필요 없어 비용은 절감

- 채소는 모두 자급자족하며 연못에서 물고기를 키워 3년 후 낚시를 해 판매
 - 하수는 모두 처리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정수하여 활용
 - 하수나 오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
-

<그 외의 인터뷰 내용>

- 개인단위로 HHP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어려움은 없었는가?
 - 멤버들의 동기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. 오랫동안 컨셉을 연구하고 정부로부터의 허가를 얻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. 멤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. 모두 10년 넘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고 1명의 전출을 제외하면 이사도 없다. 친환경적인 삶이 좋아 모두 불편함은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.
-

<토론 및 시사점>

☐ 친환경 녹색농촌을 위한 방법의 정책화 및 홍보

○ 개인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도록 의식을 뒷받침 해주고 장려하는 건축규제

- 건축규제를 통해 탄소제로하우스를 구현하고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응
-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

⇒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실천을 위해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확산하고 홍보

⇒ 정책적,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해 동기감 부여 필요

☐ 하수나 오물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할 또 하나의 자원

○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를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가꾸며 오수로 인공연못을 만들어 정화를 통해 물고기를 키워 수익 창출

⇒ 쓰레기와 오수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거나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

3. 동부 더럼 LEADER (East Durham LEADER)

☐ 개요

○ 위 치 : 카운티 더럼 위틀리 힐

○ 관할범위 : 시골지역 17개와 도시 13개 구역을 포함한 30개 구의 통합적인 LEADER 프로그램 운영

○ 특 성

- 지역의 소규모 기업원조 활동 및 경제적 배분 실현
-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경제력 창출
-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완화시키는 방법과 프로젝트 제안

-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회 제공
- 모든 목적들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주민들 대상 교육제공

□ 조사내용

- 영국 LEADER 프로그램 및 자금 체계 이해
- LAG(Local Group Action)의 기능
- LEADER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과정
- 면담자
 - Andrew Thomson : 동부더럼LEADER 의장
 - Louise Johnson : 동부더럼LEADER 관리자 외 LAG멤버 10명

□ 영국 LEADER 프로그램 및 자금 체계 이해

- 중앙(Central)정부와 지역(Regional)정부, 지방(Local)정부의 유기적 관계
 - 런던에 있는 재무부가 자금에 대한 책임을 가짐
 - 영국의 9개 구역이 정부기관과 지역개발청(RDA)의 관할 아래 있으며 정부기관은 팀을 운영하여 환경, 기후변화, 기획, 건축, 어린이, 교육 등에 전략적 결정을 수행
 - 동부 더럼의 RDA는 One North East(ONE)
 - 지방정부는 지역민들에 의해 선출된 방식의 의회를 꾸리며 이를 하위 지역 파트너십(SRP) 라고 명함
 - 예산과 책임은 정부의 여러 기준에서 지역마다 다양하게 적용
- LEADER 자금 체계
 - LEADER는 농촌(Rural)예산에 속해 있으며, ONE이 예산을 동의하고 집행

-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것은 LAG에 위임
- ONE은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고 SRP는 목표와 예산을 결정
- 프로젝트를 직접 계약하는 SRP는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지만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없음
- 프로젝트의 최후 선택과 승인은 LAG에 있음

□ LAG(Local Group Action)의 기능

○ LAG는 영국 LEADER만의 두드러진 특징

- 멤버 구성은 농부, 청년단, 사업체, 환경단체 등 27개 분야의 27인대표자로 구성
- 멤버는 공공소속의 대표자가 50%를 넘지 않도록 정부 공식 규정이 있음

○ 파트너십과 커뮤니티의 대표 활동은 LEADER의 강점

-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집단이 회의에 참석해 전문적인 정보교환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짐
- LAG내에서도 하위 조직을 만들어 세분화된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 수행

○ 타 지역의 LEADER와의 소통

- 다른 지역과의 소통으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학습

□ LEADER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과정

○ ONE, SRP, LAG 간의 유기적 관계로 진행

- 1단계 : LAG가 프로젝트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ONE에 동의
- 2단계 : 프로젝트 아이디어 고민
- 3단계 : LAG의 하위 그룹에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고 승인
- 4단계 : 프로젝트의 풀가동을 위한 초청회
- 5단계 : 정부의 감사를 위해 ONE에 프로젝트 제출

- 6단계 : 더럼의회와 프로젝트간의 계약을 LAG가 승인
- 7단계 : LAG의 감시아래 프로젝트 실행

<그 외의 인터뷰 내용>

○ LAG가 수행한 성공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례는?

- 치즈를 만드는 한 여성은 치즈 수요에 비해서 장비를 비롯한 여러 여건이 부족했다. LEADER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신청을 했고 생산을 하여 지역 식당에 배달. LEADER에서 50%의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신용조합을 운영했다. 개인과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.
- 케이터링 전문 음식 업체는 메니저가 필요해 LEADER에 신청을 했고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메니저를 선발하여 그들과의 기술과 경험으로 노인들을 위한 음식,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었다.
-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수리 기술을 교육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여 실업수당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음
- 지역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을 지역내에서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주민들의 요구를 구현함에 있어서 LEADER의 예산은 충분한가?

-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예산실행 증빙을 해야 한다. 그로 인해 예산 지원 비율이 결정되며 예산에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을 한다. 예산실행 증빙을 위한 준비는 LAG에서 지원해 준다.
- LEADER에 한정된 예산은 적다. 그러나 LAG가 적은 돈으로 커다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다.

○ 27명의 멤버들간의 의견 충돌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?

- 논쟁할 사항이 있으면 논쟁을 기꺼이 한다. 해결이 될 때까지 논쟁은 이어지다가 투표로 결정을 한다. 논쟁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해 결정을 많이 하고 있다.

○ LAG의 대표는 어떻게 결정을 하며 대표 분야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?

- 커뮤니티 안에서 추천을 통해 대표가 결정되며 분야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마다 유동적이다. 50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으나 올해는 27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다.

<토론 및 시사점>

□ 중앙, 지역,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

○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분담이 체계화 되어 있어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 짐

- 지방 분권적인 농촌정책의 시스템화

⇒ 지자체 정책에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되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에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음

□ 민간단위의 커뮤니티 활성화

○ 지방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예산집행과 프로젝트 진행의 실권을 가지고 있음

- 예산과 프로젝트 진행 결정권을 LAG에 위임

○ 민간커뮤니티 차원에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 진행

- 의회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커뮤니티에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지원을 받음

- 프로젝트 대상은 개인에서 단체까지 다양하며 저비용 고효율 추진

⇒ 민간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권한부여를 점차적으로 늘리되 초기 단계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한 철저한 평가와 감사가 필요

□ 농어촌 예산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

○ LEADER를 통해 중앙에서 내려온 정부시책에 따른 농촌 개발이 아닌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만의 프로젝트 진행

- 지역민들의 실질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실시간 으로 감지 할 수 있음

⇒ 금수강산사업 진행시 주민들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전체 보다는 농민들의 고민에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음

1. 교토 미야마초(美山)

□ 개요

○ 위 치

- 교토부 나탄시

○ 특 성

- 일본최대 가야부키(억새지붕집)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
- 사업 초반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설득하는데 18년이 걸림
- 1976년 630채였던 가야부키의 수를 유지하며 기술자와 가공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
- 중앙·지방정부가 각각 50%, 35%를 지원해 억새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 경감

□ 조사내용

○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스토리텔링

-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각종 축제와 이벤트

○ 중요 전통건물군 보존지구 지정

○ 주민들의 마을 사업 참여

- 시(市)소유의 집을 자료관으로 운영하고 마을 주민들이 안내 자원봉사

○ 면담자

- 나카노 분페이 : 미야마초 자료관 관광안내원

□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스토리텔링

- 지역의 마이너스 요인을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어 관광 활성화와 수익

창출

-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산촌유학과 일자리도 증가
- 민박이나 찻집 같은 상가는 관광객 증가가 반갑지만 순수 거주자들은 번거로울 수 있음
- 모두 48채 중 역사지붕 보존가구는 28채, 지붕을 개조한 집은 4채가 있음
- 홍보는 미디어에서 먼저 취재를 요구해 와 자연스럽게 진행
- 시의적인 마을 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치

○ 시(市)와의 적절한 협력관계 유지

- 시에서 공동민박집을 운영하고 개인이 운영하기도 함
- 시보조금이 있으며 주민 마음대로 집을 개축할 수 없음

□ 전통건축물 보존을 위한 지구지정

○ 1993년 문무과학성에 의해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로 지정

- 전통적 가치를 정부에서 인정하여 ‘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조례’ 등을 통해 마을의 자연환경도 철저히 보존
- 기념품, 찻집이 대부분인 상가 및 거주지로 구성
- 화재가 나기 쉬워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시설 설치에만 8만엔 집행

○ 전통건축의 숙박시설(여관)은 외국인에게 인기

- 한국, 중국, 대만, 미국 등 외국인의 수요가 많음

□ 주민들의 마을 사업 참여

○ 시(市)소유의 자료관을 주민들이 교대로 관광안내 자원봉사

- 중요 전통건물 보존지구 내 전시관이 위치하며 운영 보조금은 없고 시민들이 교대로 자원봉사

- 지방자치와 함께 주민들이 힘을 모아 '커뮤니티 비즈니스(지역공동체 기반 경제)를 활성화 하는데 성공

<관광객 인터뷰 내용>

○ 이름 : 나카가와 요오코 (45. 오카야마 거주)

○ 미야마초를 보러 일부러 온 것인가?

- 민박체험을 하고 복요리를 먹으러 4시간을 걸려 멀리서 왔다.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알게 되었다. 가족들과 함께 왔다. 직접 와 보니까 한적하고 운치 있고 너무 좋아 오기를 잘 한 것 같다.

○ 이름 : 나쓰에(50. 오사카 거주)

○ 미야마초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데 이 곳이 어떤가?

- 친구와 함께 일부러 이 곳을 찾았다. 그림이 아주 이쁘게 그려질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. 등화축제를 계기로 와서 민박에 머물렀다.

<토론 및 시사점>

□ 중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지정

- 문화재가 아닌 과거의 생활문화 자산인 거리와 상점들이 만들어 내는 전통 농촌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'중요 전통건물 보존지구' 지정
 - 현재 우리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함
 -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, 사실상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 관리되기 힘들고,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지정 또한 어려운 실정
- ⇒ 금수강촌의 경우, 집약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지역의 특색을 가진 공간을 마을정비지구 또는 금수강촌 중요 자원 보존지구(가칭) 등으로 지구지정을 통하여 관리
- ⇒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마을경관부분으로 확대하여 금수강촌에 적용하는 방법 모색

□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의 스토리텔링 가꾸기

- 지역 주민이 직접 차를 대접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방문객들에 제공
 - 장기적인 안목의 지속가능한 스토리텔링 사업
 - 사업초기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18년에 걸쳐 설득
 - 주민들이 직접 나서 지붕을 수리하고 미야마의 물로 녹차와 보리차를 만드는 '미야마 명수 주식회사' 설립
 - ⇒ 금수강촌은 지역주민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, 지역주민이 만드는 금수강촌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해 금수강촌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어야 함
-

2. 기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

□ 개요

- 위 치 : 효고현 북부
- 인 구 : 68,185 명 (고령자율 24.3%)
- 면 적 : 317km²

○ 특 성

- NPO 법인으로 운영되며 지역 전체를 지붕이 없는 박물관으로 조성
: 전원박물관 사업은 농림수산성이 12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, 시(市)의 지원을 받지만 지역 차원의 기타하리마 전원박물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의 NPO임
- 전시물인 새틀라이트가 현재 약 208개, 특산품 납입자 약 200명
- 새틀라이트는 지역민이 NPO에 추천하고 스스로 활동하여 운영
- 연회비 : ¥3,650
- 전체길이 168km의 일본에서 제일 긴 산책로를 구상하여 진행 중
- 지역내외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공간
- 사람, 사물, 일상생활, 지역의 자원이 전시물인 공간
- 역사를 배워 새로운 전개를 해나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조성

□ 조사내용

- 전원공간 사업에 대한 NPO의 역할
- 조직 및 운영 체계
- 일본 NPO의 이해
- 면담자
 - 마루야마 스키이찌 : 대표이사 외 2인

□ 전원공간 사업에 대한 NPO의 역할

- NPO 조직과 인사
 - 연회비 : 1,200엔
 - 회원은 모두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해, 각 부서에 속해 활동
 - NPO 법인의 조직, 인사는 회원의 합의에 의함
: 고향회원 40명, 찬조회원 5명을 포함한 120명으로 구성

○ 전원공간 박물관 운영의 역할

- 지역의 안내, 소개사업을 위탁해 시민 활동을 지원
- 새틀라이트의 운영 계획, 요청을 접수해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등록
된 곳에는 다양한 홍보활동 지원

□ 전원공간 박물관 조직 및 운영

○ 역할에 따라 5개 부서로 분리

- 새틀라이트부, 프로그램부, 총무부, 특산품부, 홍보부
- 고향회원과 찬조회원 별도 운영

○ 기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종합안내소 운영

- 해외에서 연수 오는 시찰단을 접대 및 안내하고 관광객들에 관광안내

○ 관광객의 니즈에 맞춘 체험학습 및 관광을 프로그램화

- 주민들이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재현 행사 ‘군사 주신사’
- 특산품을 활용한 아다치 양조, 양계체험 등 지역만의 특색 체험

○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

- 이벤트 캘린더와 맛집 정보 연 4회 발행
-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 및 정기적인 보도자료 배포

<일본의 NPO 제도>

- 명칭 : NPO (None Profit Organization)
 - 개념 : 비영리조직으로 경상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
 - 현황 : 1998년 <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>의 시행으로 1999년 1,724개로 시작해 2006년 25,682개
 - 운영
 - 대표와 소수정예의 스텝, 정회원, 자원봉사자 등의 계층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표와 스텝에게 소정의 보수지원
 -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지만 특정 경우 정부보조금도 있음
 - 활동분야 : 공익부문 17개 분야로 주로 도농교류, 환경, 복지, 교육, 의료 등
 - 배경 및 역할
 - 지자체, 공사, 제3섹터 등의 주체를 보완하는 농촌 지역사회 재생의 동반 참여자
 - 공익적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평균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폐해를 보완
 - 진정한 '산·학·관·민' 협동체계의 구현
 - 농촌에서의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기여를 원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기회 제공
 - 평가
 - 일본인들도 초기엔 반신반의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소득이 생겨 만족하고 생활 속의 도농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을 가지게 됨
 - 시사점
 -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극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벤치마킹할 필요
 - 일본의 초기단계의 불완전한 측면을 보완해 한국형 모델을 구축
-

<토론 및 시사점>

□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사업

- 전원공간 박물관 운영을 위한 NPO가 활동하고 지역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운영체계
 - 특산물 판매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주민들의 추천과 승인으로 이루어짐
- ⇒ 금수강촌 사업은 지역주민간, 지역주민과 귀농·귀촌자간,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함
- ⇒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에 제시하고, 지자체는 주민커뮤니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한국형 NPO모델 창출

□ 지역별 체험 및 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

- 특정지역의 자연경관과 체험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
 - 통합된 안내소에서 일정한 영역의 관광안내를 받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 - ⇒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전원공간박물관 개념을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특정영역을 포괄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화 된 관광프로그램을 제공
-

3. 미마사카 전원아트

□ 개요

- 위 치 :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 야마시로
- 면 적 : 약 4000 m²
- 설립배경
 - 무너져가는 마을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벼농사를 짓는 논에 거대한 예술작품 설계
- 특 성
 - 해마다 5월 모내기철에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이 밭그림 대로 모내기
 - 벼가 성장하면서 그림이 완성되어가며 이벤트 진행
 - 추수가 끝나는 가을까지 지속되며 외부관광객이 증가
 - 지역 특산미의 판매도 증가

□ 조사내용

- 농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
- 인기 야구 구단을 활용한 마케팅
- 수익사업에 연연하지 않은 순수 지역홍보
- 면담자 : 닛타 히로미(전원아트 주인) 외 3인

□ 농업을 통한 지역활성화

- 2003년부터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환경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
- 해마다 컨셉을 달리하여 벼 종자를 활용하여 무농약 제작
- 주민들과 도시에서 온 관광객이 함께 작업
 - 2009년에는 약 1,000명이 모여 공동 작업
- 농활하는 젊은이들의 방문이 늘었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
- 지자체의 도움 없이 개인의 의지로 운영

□ 인기 야구 구단을 활용한 마케팅

○ 지역연고 구단인 한신타이거즈를 활용

- 구단의 캐릭터를 눈에 그리고 인기선수를 초청한 이벤트 진행
- 미디어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른 유명인들의 방문을 증가시킴

□ 수익사업에 연연하지 않은 개인 지역사업

○ 개인차원의 지역관광사업

-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순수하게 농촌을 체험하게 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목적
- 도라짱에서 나온 수확물은 판매하지 않고 기념품화 하여 참가자나 방문객들에게 나누어줌
- 더 큰 규모의 전원아트가 많지만 운영자의 순수한 의도로 인기가 줄어들지 않음

<토론 및 시사점>

□ 개인과 관의 협동

- 규모도 크지 않고 큰 이익도 없지만 개인의 의지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각종 프로모션에 시의 인적지원을 받고 있음
 - 참가비도 없고 판매도 없어 운영자에게는 이익이 없지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의지로 성과를 얻음
 - 관광수입보다는 미마사카를 홍보하는 것을 우선목적으로 삼음
 -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
 -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아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- ⇒ 커다란 규모의 사업이 아니어도 지속가능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함
- ⇒ 볼거리보다는 도시민들이 체험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특별한 비용을 안들이고 기념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매력을 가져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음
- ⇒ 개인의 단기적의 재정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이 필요

□ 미마사카 전원아트에 대한 제안

- 도라짱을 브랜드화하여 전원아트에서 수확한 벼를 기념품으로 제작해 지자체에서 수익사업 가능
 - 구글어스와 같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전원아트의 변화상을 실시간으로 캡처하여 비주얼 홍보물로 활용가능
-

4. 구라요시 전통거리

□ 개요

- 위 치 : 돗토리현 구라요시시
- 특 성
 - 일본의 향기 100선에 선정된 명소
 - 구라요시는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의미를 가짐

-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술과 간장 창고
- 역사, 문화,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지역어메니티를 최대한 활용
- 화제에 강한 흙을 사용하고 도로점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길쭉한 건축 양식을 가짐

□ 조사내용

- 전통 상가들의 지속적 관리로 특산품 판매
- 민담의 지역 스토리텔링화
- 면담자 : 가와노 미에이(구라요시시청 상공관광과)

□ 전통상가들의 지속적 관리로 특산품 판매

- 전통주나 간장을 직접 제조하여 전통 방식으로 판매
 - 술이 익어가는 정도를 알리는 갈대로 만든 전통방식 표식 활용
- 관광지도와 리플렛을 만들고 한국어 버전도 제작하여 상가 비치
- 상가마다 고유색과 번호를 부여해 관리
 - 색은 판매 아이템이며 번호는 상가 관리 번호임

□ 민담의 지역 스토리텔링화

- 일본의 천녀 민담을 지역과 연관시켜 활용
 - 마을에 커다란 벽화를 그리고 민담과 관련된 장소를 선정
 - 천녀 신화와 관련한 캐릭터 상품 판매

<토론 및 시사점>

□ 개발보다는 보존을 통한 관광자원

- 술과 간장을 만들어 오던 전통을 이어서 지역만의 특색을 살림
 - 전통 방식으로 생산 및 판매

⇒ 활용가능한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개발하여 작지만 큰효과를 창출하는 어메니티화 할 필요

□ 한국의 전통거리의 전략적 홍보 필요

⇒ 농촌마을에 있는 전통가옥이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전략적 홍보를 펼쳐 관광자원으로 활용

5. 사카이미나토시 요괴거리

□ 개요

- 위 치 : 돗토리현 동쪽
- 시인구 : 36,514명 ○ 시면적 : 28.75km²
- 특 성
 - 사업기간 : 1992~1996년
 - 총사업비 : 4억 4천만엔
 - JR 사카이미니토역과 상업거리를 연결하여 요괴거리 정비
: 요괴 청동상, 그림타일, 아케이드, 미니공원 등 관광시설
 - 초기 TV방송, 만화, 민간 청동상 참여 이벤트 등 대대적 홍보활동 전개

- 행정의 사업을 계획하고 민간기구가 사업실행

□ 조사내용

- 민간기구와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역할 분담
- 지역출신의 인물을 활용한 관광사업
- 면담자 : 하마다준(사카이미나토시 시청 관광진흥계 계장)

□ 민간기구와 행정기관의 공동 사업추진

- 민간의 기부 및 참여와 기관의 재정적 지원
 -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
 - 하드웨어는 시에서 지원했지만 아이디어는 모두 시민의 역할
 - 시민 모두가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

□ 관광상품의 세계화 노력

- 미즈키시게루 자체보다는 캐릭터 콘텐츠에 주력
 - ‘게게게노 기타로; 캐릭터의 콘텐츠를 알려 세계화 노력
 - :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의 홍보물 제작
 -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활동
- 주변관광지와의 연계
 - 미즈키시게루 로드를 보러 왔다가 주고쿠 지방을 모두 여행 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
 - 다른 시·현과 협약을 맺어 교통편 마련
 -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여객노선 운영

□ 지역출신의 인물 활용

- 지역의 인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조성에 참여

- 자신의 고장을 살리고자 작가 스스로 동참

<추가 인터뷰>

- 미즈키 시게루 로드와 기념관이 조성되고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가?
 -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다. 생기기 이전 연간 2만 명 정도가 관광과 쇼핑을 하러 왔다. 그러나 조성된 이후 연간 100만 명이 다녀간다. 재정적인 면에서 지역전체의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. 연간 관람객 증가에 따른 50억 엔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.
- 돗토리에서 만화로 지역마케팅을 하게 된 이유는?
 - 돗토리는 미즈키시게루 뿐 아니라 명탐정 코난의 아오야마 고쇼월드가 있다. 일본에서 만화를 소재로 마을을 부흥시킨 것은 돗토리가 원조이다. 일본 여러 곳에서 성공사례로 발표되고 있다.
- 미즈키시게루 기념관은 지자체에 판권을 무상양도했다. 아오야마 교소(명탐정 코난 작가)의 경우는 어떠한가?
 - 작가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와 논의했다. 그래서 매상의 10%를 로열티로 지불한다. 그러나 해외홍보의 경우 아직 협의가 안 끝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.

<관광객 인터뷰>

- 이름 : 와나타베 아스카(20. 도쿄거주/닛교대재학)
- 어디를 둘러보았는가?
 - 이와테 신사, 돗토리, 요나고 등을 보았다.
- 이 곳에 왜 왔는가?
 -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하며 마을가꾸기에 관심이 많다. 이곳을 한 번 둘러보고 싶었다. 이곳은 대학 때 부터 알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명할 것이다.
- 둘러본 소감은?
 - 생각보다 콘텐츠가 많아서 놀랐다. 행정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동했다는 점에서 감명 받았다. 될 수 있는 벤치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.

<토론 및 시사점>

☐ 시 정부의 과감한 조기 지원과 홍보

- 작가가 낸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적극 추진하고 시에서 지원
 - 고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에 민관이 협동

⇒ 사업에 따라 지역개발에 지자체의 자율권을 주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구상을 하도록 해 정부해서 지원하는 방안 필요

☐ 주변관광지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

- 교통편을 만들고 협약을 통한 지역 전체의 활성화

⇒ 인기 있는 관광상품을 모방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하나의 지역에서 협력을 통해 각자의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해 상생과 협력 필요

3

결론(금수강촌 적용방안)

1. 농어촌공간의 녹색성장 실천과 삶의 질 개선

☐ 한국형 농어촌 친환경 주택 모델 제시

- 우리나라 농어촌의 경관 및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친환경 주택 모델 개발
 - 한국형 디자인과 내부의 편리성을 갖춘 주택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택 모델 제시
 - 황토집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세계화 시도
-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확산

- 탄소제로를 위한 노력을 스토리텔링으로 홍보를 하고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
- 친환경적인 삶도 삶의 질이 높다는 사실을 확산시키고 농어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

□ 서비스 기준 도입을 계기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책 마련

○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

-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행복과 수준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을 통해 삶의 질 개선
- 농어촌 주민들이 서비스 기준을 정확히 인식하게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정책개발과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2. 지역특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

□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로 전달

-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업으로써 스토리텔링사업 진행
- 자연환경, 특산물, 역사·문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 개발로 각 금수강촌 지구만의 스토리를 개발

□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촌경관디자인

- 농촌경관의 일관성 제고 및 관광상품화
 - 계획수립단계에서 기존 지역개발의 계획수준을 뛰어넘는 농촌경관디자인(경관계획+공공디자인)을 통한 개발
-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엮은 스토리텔링 개념 적용
 - 금수강촌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과 이야기로 엮어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

3. H/W위주의 개발보다는 유무형의 가치 발굴

□ 지역의 유·무형 가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

- 마을의 문화유산이나 풍습을 보존하고 지속적 관리
 -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
 - 주민의 자원봉사 등으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완·유지
 - 무형의 문화유산도 교육과 정기적 시연을 통해 보존 및 계승
-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플러스 요소로 바꾸는 창의적 사고
 - 장점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지역만이 가진 마이너스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

□ 지역개발의 인적가치 함양

- 주민단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교육 실시
 - 도덕성과 농촌사회 전반에 대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이장 교육 콘텐츠 업그레이드
 - 지역의 유·무형 가치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활성화
- 대학의 농어업관련 전공자들이 농촌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민간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

4.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정책화

□ 농어촌공간의 환경 보전 및 경관개선 운동 전개

-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
 -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농업·농촌의 환경보전운동 전개
 -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교육하고 건축규제 등 정책적인 지원

□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지역개발

- 지역주민간, 주민과 귀농·귀촌자간, 주민과 사업자간의 프로젝트 선택과 운영 권한을 주고 예산 지원

-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에 제시
- 지자체는 마을자치규약의 운영실태 점검
- 민간단체가 보다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
 - 주민 커뮤니티를 보다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
 -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모니터링

5.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

□ 금수강촌의 지역별 테마와 주변 지역자원 연계

- 금수강촌의 테마와 연계가능한 주요 자원과의 네트워크 지원
 -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실시
 -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역간 네트워크를 활성화

□ 모방과 경쟁보다는 지역적 특성화를 가지고 협력체계구축

- 유사한 사업이나 스토리로 지역 사이에 경쟁이 생기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과 지역이 하나가 되어 더 큰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제도화
 - 지역사업의 특허제도와 특별지구 제정법 시행
 - 네트워크가 잘 된 지역에 인센티브 부여